

연구보고서

對개도국(케냐, UAE) 중소기업정책 연수프로그램 개발

2010. 8



<요약문>

I

연구개요

1. 연구과제명

개도국 중소기업정책 연수프로그램 개발연구 : 케냐 및 UAE 중소기업
개발 협력 연수프로그램 개발

2.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1970년대 이후 놀라운 속도의 고도성장을 이룩한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사례는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 각 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 학습하여야 할 모범사례로 인식이 되고 있음.
- 개도국과 체제전환국 등 개발정책 수요국에서는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쳐 동일한 하위 경제군에 속해 있던 한국의 경제·사회적 비상이 자국의 경제개발모델 채택에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모범사례로 인식되고 있음.
-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북미·유럽 등의 경험과는 사뭇 다른 한국의 경제·사회개발 경험이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에 현실적인 경제·사회개발 가능성을 제시하여 “한국 학습 노력”의 원천이 되고 있음.
- 더불어 국제적인 개발원조사업의 흐름을 보면, 기존 선진국 중심의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 개발원조 사업이 수원국의 경제 환경이나 정책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
- 특히, 한국이 고도의 산업개발을 성취한 근저에는 효과적인 중소기업 육성·발전 정책 및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인식하에 각 개발도상국에서는 한국의 중소기업 육성·발전 정책과 그에 수반된 프로그램을 자국 산업 및 중소기업 정책에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인식 또한 널리 퍼져 있음.

- 이에 따라 각 개발도상국에서는 한국의 중소기업정책을 배우고자 NGO 등을 포함한 민간부문과 국제기구의 프로그램 (예: APEC 중소기업 작업반)은 물론 정부 간의 협력 등 공공부문에서의 협력사업 (예: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 한-오만 공동위원회, 한-UAE 공동위원회 등)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
- 이러한 민간·공공부문의 對개도국 협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우리 개발경험의 공유수단은 우리나라에서의 정책연수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의 성공적인 중소기업정책을 학습하고자 하는 개도국의 연수 요청은 계속 증가하는 상황
- 그러나, 기존 연수프로그램은 주관기관의 연수 실시 목적에 따라 연수 내용이 상이하여 이제까지는 전문적인 중소기업 정책 연수는 없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개도국의 기대에 부응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바, 그 원인은 크게 보아 다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1) 공여국(우리) 위주의 프로그램 실시 : 국가별 산업개발 문제 및 산업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주로 일반적인 중소기업 문제(예: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시장접근성 등 보편적 문제)와 더불어 우리의 발전사례를 소개
 - 이는 한국의 발전과정을 이해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의 발전경험에 대한 홍보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다고 보임.
 - (2) 구체적인 정책 실천 경험의 공유 부재 : 기존의 연수 프로그램은 우리의 중소기업정책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소개하는 것에 그칠 뿐으로 정책실행 메커니즘(mechanism)에 대한 우리의 축적된 경험의 제시가 없었음.
 -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은 연수프로그램이 통상 2주 혹은 그 이내에서 여러 가지 주제(themes)를 다루어야 하는 등 프로그램상의 목적 및 시간적 제약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 연수 주관기관 (예: 한국국제협력단, 지식경제부 등)의 연수목적에

따라 여러 국적의 연수자들이 혼재되어 있음은 물론, 공공·민간 부문 연수자가 동시에 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등 연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음.

- (3) 우리 중소기업과의 연결 등 우리의 기존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결고리 부재 : 기존 연수 프로그램은 그 시행목적은 달성하는데 그칠 뿐으로 우리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 지원정책(예: 시장접근성 확대, 중소기업의 국제화 등)과의 연결고리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며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견인하는 중소기업청은 점증하는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정책 학습 수요에 부응함과 동시에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독자적인 패러다임을 지닌 연수프로그램의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연구의 목적

-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기관이며,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의 성공적인 정책경험을 보유한 중소기업청이 對개도국 협력사업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반을 둔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과 중소기업 발전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은 기존 중소기업 연수 프로그램과 차별화를 가진 프로그램을 말하며, 차별화의 초점은 주로 수요국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는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Demand-driven, need-driven training programmes)의 개발에 두어짐.

- 이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은 다음의 요소를 반영하도록 함

- (1) 공여국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수원국 위주의 내용 개발 (공여국 위주→수원국 위주)
- (2) 수원국의 현실적인 정책 수요를 반영하는 프로그램 모듈 개발
- (3) 정책의 평가를 포함한 우리 중소기업의 정책 실천 경험 공유
- (4) 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독자적 모듈 개발 (추후 필요에 따라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진 지역국가 등으로 그룹화도 가능)

(5) 시간적 제약 등 현실적 제약을 반영한 효과적인 모듈 개발

(6) 우리 중소기업 및 기존 중소기업 정책과의 연결고리 개발

- 이에 따라,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과 중소기업 발전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국력의 제고는 물론, 세계화의 중심에서 중소기업청의 역할을 재정립함과 동시에 수원국과의 협력 실효성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수원국 진출에 있어 효과적인 발판을 마련
- 또한 개도국의 중소기업지원담당 정책결정자 및 실무자를 연수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우리 중소기업 정책 담당 기관인 중소기업청과 개도국 중소기업지원담당 정책결정자 및 실무자 간 협력기반을 강화
- 이를 위하여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적 특성과 현황을 분석하고, 현지수요를 파악하여 협력대상국의 현황에 부합하는 우리의 중소기업 발전정책에 기반을 둔 각 국별 맞춤형 연수과정 개발

3. 연구의 방법

□ 문헌 분석

- 거시경제지표 등의 분석을 통한 협력대상국의 성장패턴 파악
- 협력대상국의 국가개발전략 등 최상위 개발전략의 분석을 통한 경제·사회 개발 방향 파악
- 산업정책 및 중소기업정책 등을 파악 분석하여 산업 및 중소기업 개발 정책 방향 파악

□ 수요조사

- 문헌 분석 및 전자우편, 전화 등에 의한 인터뷰를 실시하여 현지 수요를 확인

1.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 기본 개념

-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의 기본 개념은 협력대상국(혹은 수원국)의 수요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점에 있음. 다시 말해,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연수 프로그램은 수원국의 수요에 의한 demand-driven, need-driven 프로그램으로 수원국의 중소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할 것임.
 - 이는 또한 개발원조의 국제적 흐름에 부응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음.
 - 그간 선·후진국간의 개발격차해소 등 범세계적인 경제·사회 개발이슈에 있어서 선진국의 발전경험과 축적된 지식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나, 선진국 중심의 개발원조 사업은 수원국의 경제·사회 환경의 특성이나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공여국의 일방적인 정책공급 방식으로 인하여 수원국의 경제·사회 개발 정책수요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
 - 이와 같은 국제적인 추세를 보면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은 수원국의 ownership을 강조하는 최근 국제적 원조협력사업의 흐름과도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음.
- ※ 이와 같은 최근 해외개발원조사업의 새로운 흐름을 볼 때 우리 중소기업 개발경험의 협력대상국 이전 시 대외적으로 “공유(sharing)”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통상 사용하는 “전수(transfer)”라는 용어에 비하여 더욱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됨.
- 또한 수원국에 우리의 중소기업 정책을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중소기업 정책의 실시 배경 및 기술적諸문제, 정책 전과 과정상 제문제, 중간 혹은 최종 평가 결과 등을 제시하는 등 연수 내용의 전문화를 기함으로써 수원국이 우리 정책의 도입 시 우리의 성공 및 실패요인(success and failure factors)을 사전 학습함으로써 자국 내에서

동일한 정책실시시 착오를 최소화하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함.¹⁾

1) 첨부 <부록> “한국의 경제개발 단계별 환경적 특성 및 중소기업 정책” 참고 요.

1. 사업대상국의 경제·사회개발현황: 케냐

가. 케냐의 경제·사회 현황 및 문제점

- 케냐는 1969년 이후 1982년까지 집권 KANU(Kenya African National Union)당의 일당 독재 국가였으며, 1992년과 1997년 선거는 케냐의 종족 문제가 폭발한, 폭력으로 얼룩진 선거였음.
- 2002년 12월 선거에서 범종족 통합 야당 후보인 The National Rainbow Coalition(NARC)의 파이·키바키(Mwai Kibaki) 후보가 집권 카누당의 우후루·케냐타(Uhuru Kenyatta) 후보에 승리하면서 40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룸
- 2005년 NARC는 내부 분열로 NARC를 이탈한 한 그룹이 KANU와 결합하여 새로이 Orange Democratic Movement(ODM) 을 창당. 이어진 2007년 12월의 선거에서 키바키 후보가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나, ODM의 Raila Odinga 후보와의 부정선거 시비로 두 달간 이어진 폭동이 발생, 1,500명 이상이 사망
- 2008년 2월 UN이 주선한 화해로 야당의 라일라·오딩가 후보가 새로이 부활된 총리직을 수락하며 정부로 입각, 정치·사회적 안정이 회복됨.
- 그러나 일인당 GDP는 약 \$783로 빈곤국에 속하며, 전체 약 4,000만 인구 중 50% 정도가 빈곤선 이하에 속하는 등 경제·사회 개발에 긴급성이 있음.²⁾
- 1960년 이후 2008년까지, 약 50년간의 평균 성장률은 약 4.62% 정도로 정치·사회적 불안정 등으로 1970년대 초반의 폭발적 성장 탄력을 상실하여, 동아프리카의 허브로서의 위치와 역할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2) U.S. Government, "World Factbook," Central Intelligence Agency, 2009 과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On-Line*, 2010. World Factbook은 2009년 일인당 GDP를 2009년 환율기준 약 \$1,600로 추산.

- 1997년 IMF가 정부의 무능력과 부정부패의 감소 실패 등을 이유로 케냐의 Enhanced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me을 정지시켰을 정도로 케냐정부의 역량 미흡과 부정부패의 문제는 케냐의 경제·사회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
- 인구의 구성은 부족적/인종적 측면으로 보면 22%의 키쿠유(Kikuyu), 14% 루히야(Luhya), 13%의 루오(Luo), 12%의 카렌진(Kalenjin), 11%의 캄바(Kamba), 6% 키시이(Kisii), 6% 메루(Meru), 기타 15%의 아프리카인, 1% 정도의 인도·파키스탄, 유럽인, 아랍인 등 다양한 부족·인종으로 이루어져 있음.
- 케냐는 젊은 나라로 연령별 인구구성은 15~64세가 인구의 55.1%를 구성하고 있고, 문자해득율(literacy rate)은 85% 정도³⁾
- 인력개발지수는 우리나라의 0.937과는 비교할 수 없으나, 동아프리카 역내에서는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와 마찬가지로 인력개발지수는 세계 하위권에 속하며 앞으로 개발의 여지가 있음.
- 1960년 이래 케냐 산업구조변화의 특징은, 제조업 등 산업은 정체에 있으며, 농업의 부가가치는 아직도 케냐의 총생산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임

나. 케냐의 경제·사회 개발 전략: *Kenya Vision 2030*

□ *Kenya Vision 2030* 개요

- 케냐의 경제·사회 개발의 전략적 목표는 *Kenya Vision 2030*라는 문서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문서는 케냐의 경제·사회 개발전략에 있어 가장 상위의 전략 틀이라고 할 수 있음.
- *Kenya Vision 2030*는 2030년까지 케냐를 국민소득에 있어 세계 중위권의 신흥공업국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동 문서는 경제(economic), 사회(social)와 정치(political)라는 세 개의

3) 각주 1) 참조.

기둥(pillar)에 기반하고 있으며

- 경제적 기반(pillar)은 2012년부터 평균 년 간 GDP 성장률 10%를 달성하는데 두어짐.
 - 사회적 기반은 청정한 환경속의 사회적 정의에 바탕을 둔 정의롭고 융화된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으며,
 - 정치적 기반은 법치(rule of law)와 인권의 보호 및 케냐의 모든 시민의 자유를 존중하는 이슈정치에 기반을 둔 민주정치구조를 달성하는데 있음.
- *Kenya Vision 2030*은 5년 중기계획에 의하여 실행에 옮겨지며, 첫 번째 5년 중기계획은 2008년~2012년에 걸쳐 실행되고 있음.
- *Kenya Vision 2030*은 전기 3개 기반에 있어 각 주력 개발 프로젝트인 플래쉽·프로젝트(flagship projects)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음.
- ※ 이 플래쉽·프로젝트에 2008~2012 중기계획 기간 중 최소 5개의 중소기업 (생산)산업단지를 설립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음.
- 또한 *Kenya Vision 2030*의 지지 기반은,
- 안정적 거시경제(macroeconomic stability)
 - 거버넌스 개혁의 지속(continuity in governance reform)
 - 형평성의 향상과 빈곤층을 위한 부(富)의 창조 기회 확대(enhanced equity and wealth creation opportunities for the poor)
 - 인프라(infrastructure)
 - 에너지(energy)
 - 과학, 기술 및 혁신(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
 - 토지개혁(land reform)
 - 인력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 치안(security)
- 공공부문개혁(public sector reform) 등에 기초하고 있음.

□ *Kenya Vision 2030*의 경제적 비전⁴⁾

- *Kenya Vision 2030*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산업부문이 2008~2012년 중기실행계획을 위한 성장동력으로 우선순위가 매겨짐

다. 케냐의 중소기업 현황 및 문제점

□ 케냐의 중소기업 현황

- 케냐의 중소기업 범위는 2009년 상정된 법안에 의함
- 케냐의 영세기업 및 소기업은 약 170만개 정도로 추산되며, 중기업은 약 34,000개 정도로 추산됨(2007년 추산). 이를 기준하면 중소기업은 전체기업의 약 99.9%를 차지
- 중소기업의 GDP기여율은 약 50% 정도로 추산
- 그러나 중소기업의 고용은 전체 고용의 약 80%를 상회하며, 산업별 고용 실태는 목재 26%, 식음료 23%, 직물 및 피혁 산업이 약 28% 등임
- 영세기업 및 소기업(micro & small enterprises)의 소유권(ownership)은 남녀 간 거의 균등함. 그러나 남성은 제조업의 약 65.7%, 건설업의 92.2%를 소유하고 있음⁵⁾
- 기업체의 지역적 분포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의 지역적 분포는 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수도 나이로비의 집중현상이 두드러짐.⁶⁾

4) 사회적 정치적 비전은 본 문서에서 다루지 않음.

5) The United Nations(2005) *Linking Industrialisation with Human Development*, UNDP, Nairobi

6) 등록기업(Registered businesses)의 경우를 말함.

□ 케냐 중소기업의 문제점

- 기업 및 기업 활동이 영세함.
 - 약 98%의 기업이 영세기업 및 소기업
 - 대부분 자본율이 낮으며, 설비를 갖추고 기업을 하는 경우가 매우 적음
 - 대부분 노동집약적 산업활동에 종사
 - 기술의 습득 및 사용 수준이 매우 낮음
- 진입 및 퇴출 장벽이 낮음.
 - 따라서, 중견기업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며,
 - 개인 혹은 가족 구성원이 운영하는 기업이 대부분
- 영세기업 및 소기업 오너(owner) 혹은, 종사자의 기술 및 교육 수준이 낮으며, 직업 교육의 기회도 적음.
- 기술접근성이 낮으며, 기업 활동에 기술 도입 수준도 낙후되어 있음.
- 영세기업 및 소기업이 접근 가능한 시장 자체가 규제되어(regulated) 있지 않아 경쟁이 심화
 - 규격화(organised)된 시장으로의 진출에 애로
- 금융접근성이 대단히 어려움
- 기타 기업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음.
-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문제와 정부의 중소기업 발전의지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중소기업 정책을 펴나가기에는 많은 난관이 존재
 - 일례로 행정편제상 케냐의 중소기업 정책은 무역부(Ministry of Trade), 산업화부(Ministry of Industrialisation), 청년·체육부(Ministry of Youth and Sports), 노동부(Ministry of Labour)를 비롯한 18개 정도의 행정부서는 물론 국무총리실(Office of Prime

Minister)까지로 나뉘어 실행되어 일관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매우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음.

□ 미등록기업(informal enterprises)의 문제점

- 케냐에는 약 168만개 정도의 미등록 기업이 존재한다고 추산하고 있음
- 그러나 주아·칼리(Jua Kali)의 고용효과는 케냐경제에 GNP 대비 약 34% 기여도가 있으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⁷⁾
- 일반적으로, 주아·칼리(Jua Kali)는 케냐 GDP의 약 18% 정도의 기여도를 보이고 있으며⁸⁾ 2000년도에는 약 400만명, 2002년에는 약 500만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음(이는 약 74.2%의 고용율)⁹⁾.
- 주아·칼리(Jua Kali)는 아주 불법적인 informal과 부분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partial formal로 나뉨.
- 미등록기업(informal)은 등록기업보다 실패율이 높으며, 퇴출율 또한 높음.¹⁰⁾
 - 등록기업의 생존율 : 평균 30년
 - 미등록기업(그러나 부분 등록기업)의 생존율 : 평균 15년
 - 미등록기업의 생존율 : 평균 10년
- 등록기업이 되면 금융접근성이나 토지접근성, 비즈니스 인프라 혹은 정부의 지원 등으로 접근이 가능하지만 과거 비즈니스 운영 기간 동안의 세금(past taxes)이 과도하고 정부 관리의 부패 등으로 미등록기업을 등록기업으로 유도할 수 있는 동인(動因)이 적음.

7) World Bank(2006) "Summary of Urban Informal Sector Investment Climate Analysis in Kenya" Note No. 35. August 2006, Nairobi.

8) AfricanEconomicOutlook.org(2010) "Public Resource Mobilisation," *African Economic Outlook*, <http://www.africaneconomicoutlook.org/en/countries/east-africa/kenya/>

9) Center for International Private Enterprise (2007) "Jua Kali Associations in Kenya: A Force for Development and Reform," *REFORM Case Study*, No. 0701, January 25, 2007., Washington, D.C., USA.

10) World Bank(2006).

- 최근에는 주아·칼리가 조직화 되어 협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2007년 현재 전국에 약 600여개의 주아·칼리협회(Jua Kali Association)이 등록되어 회원의 이익을 뒷받침하고 있음.
- 케냐 정부는 세금부과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주아·칼리협회를 장려하고 있으나 이들을 등록기업으로 유도하여 정규 경제구조에 편입시키기 위하여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2. 사업대상국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케냐

□ 예상 협력대상분야 및 수요조사

- 케냐의 경제 전반과 중소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한 결과 다음의 분야가 우리 중소기업청과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판단됨.
 - 일관된 중소기업 정책을 수립, 실행하는 기관의 설립
 - 중소기업에 위한 금융접근성의 확대
 - 중소기업에 위한 시장 개발 및 확대
 - linkage 및 클러스터 개발
 - 여성기업의 창업 촉진 및 여성 대상 기업가 정신 함양
 - 중소기업자를 위한 기술 및 관리 능력 향상 교육(capacity building)
 - 중소기업 기업환경 개선
 - 소상공인 지원 등
- 이 중 케냐 정부의 범정부 차원의 개혁(세계 개혁 등 중소기업 기업환경 개선) 등의 과제는 단기적인 개혁의 기대가 어렵고,
- 중소기업에 위한 금융접근성의 확대, 여성기업의 창업 촉진 및 여성 대상 기업가 정신 함양 등의 과제는 세계은행이나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이미 다루고 있는 등 우리의 협력과 중복이 될 과제들이 다수
- 따라서, 우리 중소기업청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분야는 크게 일관

된 중소기업 정책을 수립, 실행하는 기관의 설립이나 linkage 및 클러스터 개발,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등의 정책 및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함.

- 따라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테마(theme)으로 연수과정안(案)을 작성함.

□ 수요조사

- 사업국 대상국 케냐의 연수 프로그램 수요조사는 전화 인터뷰에 의함.
- 인터뷰 대상은 2007년 케냐 대상 중소기업 발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울에서 연수의 경험이 있는 현 케냐 무역부(Ministry of Trade)의 지역센터장인 Mr. Jared Nyaundi를 포함한 케냐 공무원 3인임

□ 소상공인 지원 정책 : 기대효과

- 케냐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기업 및 소기업의 육성에 기여함.
- 또한 케냐 informal sector의 formal sector로의 전환 유도에 일조
 - 경제개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들 중의 하나이자, 우리나라도 경험한 바 있는 informal sector에 관한 문제 해결을 지원
 - informal sector의 formal sector로의 전환 필요성은, 수혜국인 케냐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로서, 수혜국의 니즈와 절대적으로 부합하는 맞춤형 연수과정임
 - 또한, informal sector는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들의 공통적인 문제로서, 향후 발전경험을 널리 공유하여 국격을 제고할 수 있는 연수과정으로 발전
 - 수혜국인 케냐의 informal sector는 GDP의 약 18%를 점하고 있으며, 제조분야의 12.1%를 훨씬 상회

□ 연수 주요 과정

- 판로 대책(단체수의계약 등 공공구매제도)

-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단체수의계약 물품으로 정해진 물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의 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에 의거하여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
- 이 제도를 통하여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조직토록 함으로써 informal sector를 formal sector로 유인하며, 동시에 중소기업의 조직화를 기함
-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나, 장기간 운용 시, 연고배정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정기간 운용 후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전환 및 폐지 필요

○ 소상공인 지원 대책

- 수혜국 informal sector의 대부분은 소상공인으로써 formal sector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국가경제 발전에의 참여 기회 부여

○ 방향

- 창업정책은 창업의 양이 아닌 창업의 질 즉,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초점
- 소상공인의 규모의 경제달성을 위한 공동창고·공동구매·공동브랜드 등 협업화 지원정책과, 협업화 정책 대상자들 간의 이해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 구축 방안
- 재래시장의 정책은 상권의 활성화 차원을 진행하고 여타 중소유통업체와의 경쟁을 통해 자생력 내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강구

3. 케냐 공무원 대상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정책 연수일정 (안)

가. 연수개요

- 과정명 : 케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정책

- 연수기관 : 중소기업청
- 연수기간 : 2주 내외
- 참가예정 인원 : 15명 내외
- 소요예산 : 1.5억원 (추정)
- 과정목적 및 기대효과
 - 케냐 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영세기업 및 소기업 육성이란 시급한 과제에 한국의 소상공인 육성 정책을 벤치마킹
 - 협력대상국인 케냐 및 아프리카 지역의 큰 경제적·사회적 문제점 중의 하나인 informal sector를 formal sector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적 수단과 방법을 공유하는 기대효과
 - 협력대상국의 문제점에 대한 맞춤형 연수로서 교육 효과의 제고와 인근 여타 국가로의 파급 및 지속적 연수 수요 창출
 - 향후, 정책 컨설팅 등으로 영역 확대
 - 기타 경제개발 경험 공유를 통한 실질적 국격 제고 및 양국 중소기업 간 자원, 무역 등 교류 확대

나. 교과목 예시

분 야		강의주제 및 방문지	비 고 (운영일수)
강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제도	○ 한국의 소상공인 지원제도	소 상 공 인 진 흥 원 , 지원센터 방문(1일)
		○ 공공구매의 활성화 방안 ○ 단체수의계약제도 소개	조달청(0.5일) 중기청(0.5일)
		○ 중소기업에 위한 규제개혁	(0.5일)
		○ 협동화 및 협업화지원제도	중진공, 협동화사업장, 소기업사업장 방문(1일)
	경제발전	○ 한국의 경제발전과 중소기업	(0.5일)
		○ 중소기업발전을 위한 시장개발 및 활성화 ○ 한국의 새마을운동	(0.5일) (0.5일)
현장방문		○ 소기업진흥원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기업사업장 ○ 협동화사업장	
워크숍(1일)		○ 중소기업청 업무소개 및 공동 발전전략 워크숍 ○ 청장님(차장님) 주최 환영 오찬(만찬)	
산업 시찰 (3일)	○ 기간산업 -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울산), 포스코(포항) ○ 문화체험 - 불국사, 천마총		
문 화 체 험	○ 문화체험 ○ 시티투어(디지털파빌리온, 유스패밀리 등) ※ 토요일, 일요일 활용		

1. 사업대상국의 경제·사회개발현황: UAE

가. UAE의 경제·사회 현황 및 문제점

- 아랍 에미리트 연합은 7개의 에미리트(토후국)를 연합하여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체제로서 7개의 각 에미리트는 통치자가 지배하고, 중앙 정부는 대통령이 통치하는 공화정 체제이고, 각 에미리트는 별도의 경찰과 과세권을 가지며, 외교와 군사는 중앙정부에서 행사
- 현재 대통령은 2004년 11월 3일 이래 아부다비의 통치자인 칼리파 빈 자예드 알 나하얀이고, 총리는 2006년 1월 5일 이래 모하메드 이븐 라 시드 알 마크툼이 맡고 있음.
- 2008년, 아랍에미리트의 국내총생산(GDP)는 2,621.5억 달러, 1인당 GDP는 55,028 달러이며, 2008년 말 인구는 476.4만 명, 물가상승률은 12.26%, 경상수지는 410.9억 달러의 흑자를 실현하여 GDP의 15.7%를 차지함.
- 그러나 2009년에는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인하여 GDP가 거의 3.5% 정도 떨어졌으며, 두바이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으나 아부다비의 지원으로 위기를 넘김.
- 2009년 공식 환율에 의한 GDP는 2,313억 달러로 추산되며, 1인당 GDP는 42,000 달러로 추산
- 2009년, 총 수출은 1,747억 달러로서, 원유가 45%를 점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대상국은 일본이 17.27%, 한국이 10.49%, 인도 9.96%, 이란 6.82%, 타일랜드 5.11% 등임
- 2009년 수입은 1,445억 달러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기계 및 수송기계, 화학제품, 식품 등이고, 수입대상국은 중국이 15.03%, 인도 14.27%, 미국 8.44%, 독일 5.81%, 일본 4.52% 등임
- 산업 분야별 GDP는 농업이 1.1%, 공업은 48.5%, 서비스업이 50.4%를

점하고 있음

- 경제의 다변화를 위한 정부의 성공적인 노력으로 석유와 가스 생산에 기초한 GDP 비중을 2009년 약 29% 정도로 감소시켰으며, 일자리 창출과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및 공공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는 중 .
- UAE의 인구는 공식적으로 2009년 현재 819만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나 에미리트 원주민의 인구는 감소세에 있어 이와 같은 급격한 인구 증가는 외국에서 유입되는 인구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11)
- 이는 에미리트 원주민과 외국에서 유입된 인구를 포함한 수치이며, 2009년 10월 기준 추산 외국인의 수는 인도인 175만 등을 포함 약 500만으로 추산되고 있어 인구의 약 80% 이상이 외국인인 것으로 추산
- 총 노동인구는 315만 2천 명으로서 농업분야에 7%, 공업분야에 15%, 서비스업에 78%가 종사하고 있음. 주요 공업분야는 석유화학, 수산업,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및 상선수리, 건축자재, 수공업품, 섬유 등임.
- 노동가능인구가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외국노동인구의 유입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UAE 정부는 에미리트 원주민과 외국이주인력 사이의 인구 불균형을 우려하여 이민에 대한 검토를 한바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민을 완고하게 거부하고 있는 실정임.12)
- 이와 같은 경제사회적 현황을 볼 때 UAE 경제사회개발에 있어 장기적인 문제점은, 석유와 외국인 노동력에의 의존도 심화로서, 향후 수 년 간의 전략은 교육제도의 개선과 민간부문에서의 고용 증대를 통한 내국인의 기회 확대와 다변화에 있다고 할 수 있음.

나. UAE의 경제·사회 개발 전략: 아부다비 *Vision 2030*¹³⁾

11) 2005년 인구조사에서 UAE의 인구는 약 410만으로 조사되었음.

12) UAE Interact (2009) "UAE flatly rejects citizenship for foreign workers", www.uaeinteract.com

13) 아랍에미리트의 각 에미리트는 경제사회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경제개발계획을 가지고

□ 아부다비의 경제 *Vision 2030* 개요

- UAE에서 가장 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아부다비의 경제 개발의 전략적 목표는 *The Abu Dhabi Economic Vision 2030*라는 문서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문서는 아부다비의 경제·사회발전전략에 있어 가장 상위의 전략 틀이라고 할 수 있음.
- The Abu Dhabi Economic Vision 2030은 2007년 8월에 발표된 정부의 정책강령 원칙에 기초한 에미리트의 경제 발전 안내서라 할 수 있음.
- 동 문서는 에미리트의 사회(social), 정치(political), 경제(economic)의 미래를 구성할 다음 아홉 개의 기반(pillar)을 확인:
 - 민간부문으로의 대규모 이양
 - 지속적인 지식 기반 경제
 - 최적의 투명한 규제 환경
 - 강력하고 다양한 국제관계의 지속
 - 에미리트 자원의 최적화
 - 최상의 교육, 의료 및 사회기반 자산
 - 완전한 국제적, 국내적 안전 보장
 - 아부다비의 가치, 문화 및 전통의 유지
 - UAE연방에 대한 의미 있고 발전적인 기여
- 정부는 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네 가지 우선분야에 초점을 둔 직접적 공공정책의 시행을 천명
 - 경제 발전

있으나 크게 상이한 점이 없으므로, 에미리트 중 가장 큰 영토와 경제규모를 가진 아부다비의 경제개발계획을 검토하여 봄으로써 에미리트의 장기적인 경제사회 개발계획을 가늠하여 볼 수 있음.

- 사회적, 인적 자원의 개발
- 사회기반시설의 개발 및 환경의 유지
- 정부 운영의 최적화
- 또한, 경제의 다변화를 위한 한 중요한 방안으로서, 중소기업 육성의 필요성을 경제개발의 최우선 정책의 하나로 기술
-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 개발을 위한 선도적인 조치로서 칼리파펀드를 설립하여 운용함.
- GDP와 고용에 있어서, 유사한 양의 석유를 생산하는 노르웨이에 비하여 아부다비 등 UAE는 석유부문에 대한 집중이 매우 심하므로 외부 충격에의 취약함을 산업다변화로 극복코자 함.
- 이를 위하여 근래에 경제구조와 성장주기의 근본적인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한국, 노르웨이, 아일랜드 등 다른 변환 경제 (Transformation Economy) 국가와 유사한 수준의 경제적 다변화와 안정을 얻기를 희망
- 아부다비는 석유화학을 포함한 비석유부문의 GDP기여 목표를 2030년까지 64%로 책정
- 이는, 수출지향적 비석유부문의 신속한 성장의 추진으로 GDP와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데 기인함.
- G7 국가 대부분의 경우, 중소기업이 GDP에의 기여도가 높은 것과 같이 아부다비도 중소기업분야의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음.
- 따라서, 아부다비를 벤치마킹 대상국가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동시에 경제적 위험으로부터의 노출을 줄이며, 혁신을 촉진하고, 고용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부문의 개발이 필요
- 역동적인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 기반의 다변화는 위기를 차단하고, 경제적 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과 그 중소기업의 클러스터 내 협력은 고부

가가치 성장을 최고화하고, 경제적, 기술적 혁신을 가능케 할 것임

- 중소기업 부문은 현재까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왔으며, UAE 국민으로서의 긍지 증대와 기업가나 벤처캐피털리스트 등에게 성장 환경 제공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임.
- 이러한 기업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아부다비 및 UAE 각 에미리트는 대형 National Champions의 개발과 중소기업 육성이란 두 비전의 균형을 이룬 전략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음.

다. UAE의 중소기업 현황 및 문제점

□ UAE의 중소기업 현황

- UAE 정부는 중소기업 분야를 경제발전전략의 중요 축으로 지정하고 현재 GDP의 60%를 기여하고 있는 중소기업 분야가 장래에는 98%의 높은 수준의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발전 기반조성 및 지원시스템을 갖출 것임을 천명¹⁴⁾
- 이에 따라 중소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10억 AED 규모의 칼리파 기금(Khalifa Fund)을 조성
- UAE의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약 98.5% 정도
- 서비스 업종을 제외한 상업 및 제조 분야 약 26만개의 기업 중 약 208,000(약 80%) 정도가 중소기업으로 추산
- 아부다비의 경우 중소기업이 약 58%의 민간부문고용을 책임지고 있음.¹⁵⁾ 두바이의 경우는 아부다비보다 약간 높은 약 61%의 노동인구의 고용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음.

□ UAE 중소기업의 문제점

- UAE 중소기업 개발을 포함한 경제사회개발의 가장 큰 구조적인

14) Bitar, Zaher (2010) "Non-oil sector tops 71% of UAE GDP," *Gulf News*, Sunday, 30 May 2010.

15) Abu Dhabi: Economic Vision 2030.

문제점은 (1) 석유 등 부존자원의 의존도 (2) 에미리트 인구구조에 따른 외국노동력의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 있음.

- 이에 대한 대응으로, UAE 정부는 산업다변화와 기술집적산업, 특히 제조 분야의 개발 및 성장에 미래 성장동력을 찾으려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맥락에서, UAE정부는 UAE의 중소기업도 혁신 없이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중소기업 부문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음 .
- 구조적 문제는 다음에 열거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 UAE의 산업이 서비스 및 상업 중심이며,
 - 대부분의 기업들이 도소매를 비롯한 외국 대기업의 현지 파트너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치중하고 있어 R&D 혹은 기술집약적 창업 활동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도전적인 창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약함).
 - 다국적 기업을 포함하는 UAE 상주 외국기업은 대부분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사 혹은 마케팅 법인 형태의 서비스 중심의 법인이라 R&D 혹은 기술혁신 등의 법인은 거의 전무함.
 - 또한 기업들이 R&D나 기술개발 등에 투자할 지식 등 보유 역량이 부족(이는 미미한 수준의 특허등록 등으로도 나타남).
 -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의 제고가 필요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를 통한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장치 구축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연계총괄구조 기반 구축
- 정책적 이슈로는,
 - 신기술의 개발이나 신기술 이전과 그에 따른 기술 현지화에 대한 인

센티브 정책 미흡

- 산학협력 정책 미흡

- R&D 장려 및 기술의 상업화(commercialisation) 유인 정책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음.

○ 이와 같이 구조적이며 정책적인 이슈들이 UAE 중소기업 발전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중소기업청 등 우리 정부와의 협력은 UAE의 중소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문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 사업대상국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UAE

☐ 예상 협력대상분야 및 수요조사

○ UAE의 경제 전반과 중소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한 결과 다음의 분야가 우리 중소기업청과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판단됨.

- 기업가 정신의 함양

- 기술혁신(신기술 이전 및 현지화 포함)

- 산학연협력(R&D 및 개발기술의 상업화 포함)

- linkage 및 공급가치사슬 개발

- 중소기업인을 위한 기술 및 관리 능력 향상(capacity building)

○ 중소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금융접근성 문제 등은 이슬람 은행권에서 이미 많은 연구결과를 축적하고 있으며 UAE의 칼리파 기금(Khalifa Fund) 등이 이러한 종류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설립이 되었으므로 금융 문제는 협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수요조사

- 사업국 대상국 UAE의 연수 프로그램 수요조사는 전화 인터뷰에 의함.
- 인터뷰 대상 및 접촉창구는 UAE 경제부(Ministry of Economy)의 산하기관으로 중소기업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Mohammed bin Rashid Establishment for SME Development (MBRE)의 정책전략국(Directorate of Policy and Strategy)의 Mr. Alexandar Williams (국장) 및 Ms. Natasha Husain임.

3. UAE 공무원 대상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정책 연수일정(안)

가. 연수 개요

- 과정명 : UAE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혁신정책
- 연수기관 : 중소기업청
- 연수기간 :
 - 고위공무원 1주 내외 : 고위직 정책결정자는 장기간 공석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1주 내외의 짧으나 효과적인 프로그램 진행
 - 일반공무원 : 2주 내외
- 과정목적 및 기대효과
 - 석유 등 천연자원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며, 미래지향적 산업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장기적 과제에 한국의 기술지원 및 혁신정책을 벤치마킹
 - 협력대상국의 문제점에 대한 맞춤형 연수로서 교육 효과의 제고와 인근 여타 국가로의 파급 및 지속적 연수 수요 창출
 - 향후, 정책 컨설팅 등으로 영역 확대
 - 기타 경제개발 경험 공유를 통한 실질적 국격 제고 및 양국 중소기업 간 자원, 무역 등 교류 확대

나. 교과목 예시

☐ 고위 공무원

분 야		강의주제 및 방문지	비 고(운영일수)
강의 및 토론	기술지원 및 혁신정책	○ 벤처기업 육성정책 소개 ○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소개 ○ 중소기업청과의 Roundtable	중기청(1일)
		○ 기술지원 및 혁신정책 소개 ○ 협동연구개발 지원제도 소개	대덕연구단지 및 연구소 방문(1일)
		○ 한국벤처투자(주)의 지원 제도 ○ 한국벤처투자(주)와의 Roundtable	한국벤처투자(주) 방문 (1일)
현장방문		○ 중소기업청 ○ 대덕연구단지 및 연구소 ○ 한국벤처투자(주)	
산업 시찰 (2일)	○ 기간산업 -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울산), 포스코(포항) ○ 중소기업 - 철강 및 알루미늄 2~3차 가공 현장		

□ 일반 공무원

분 야		강의주제 및 방문지	비 고 (운영일수)
강의	기술지원 및 혁신정책	○ 벤처기업 육성정책 소개 ○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소개	중기청(1일) 대덕연구단지 및 연구소 방문(0.5일)
		○ 기술지원 및 혁신정책 소개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 방문(1일)
		○ 한국벤처투자(주)의 지원 제도 및 사례	한국벤처투자(주) 방문 (1일)
		○ 협동연구개발 지원제도 소개	한양대 안산캠퍼스 등 방문(1일)
		○ 기술담보사업 및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제도 소개	기술신용보증기금 방 문(1일)
	경제발전	○ 한국의 경제발전과 중소기업 ○ 한국의 ICT와 지원제도	(0.5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방문(0.5일)
현장방문		○ 중소기업청 ○ 대덕연구단지 및 연구소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한국벤처투자(주) ○ 협동연구개발단지 ○ 기술신용보증기금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워크숍(0.5일)		○ 중소기업청 업무소개 및 공동 발전전략 워크숍 ○ 청장님(차장님) 주최 환영 오찬(만찬)	
산업 시찰 (3일)	○ 기간산업 -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울산), 포스코(포항) ○ 중소기업 - 철강 및 알루미늄 2~3차 가공 현장 ○ 문화체험 - 불국사, 천마총		
문화 체험	○ 문화체험 ○ 시티투어(디지털파빌리온, 유스패밀리 등) ※ 토요일, 일요일 활용		